

0809(화) 예레미야 7-10장 내 목소리를 들으라!

만일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자,
돌이키려는 자가 있었다면 어떤 반응으로 응답했을까요?

그는 <성전>에 올라가 더욱 정성된 <예물>을 드렸을 것입니다.
성전은 주의 거처요, 주께로 가는 참된 길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.
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는 안정과 구원을 갈망하며
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.
(삼하22:31, 왕상8:11,29, 시5:11,34:8,118:8-9, 36:7, 57:1, 61:4, 91:4)

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 부르십니다(7:11).
귀를 틀어막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며 책망하십니다(7:13,27).
하나님은 옛적부터 인애와 정의, 의로움을 강조하셨건만(7:23-24),
백성들은 옛적부터 목이 곧고 완고했습니다(7:25-26, 8:5-6, 9:13-14).

그들은 제멋대로 더 정성된 <예물>을 바치더니(6:16-20),
급기야 <우리가 구원을 얻었다>며 셀프 용인했습니다(7:10, 11:15).
참 신앙, 참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들이 동반되기 마련인데,
유다의 신앙은 <정성의 종교>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김근주, 특강 예레미야
일상에는 폭압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(7:5-9,9,18, 9:5,8,).

유다는 현실정치와 국제정세의 위기를 열강으로 해결했습니다.
정치/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분들을 잊었습니다(8:10, 9:12, 10:21).
헛되고 무익한 것에 기댄 결과 수많은 전쟁에 휘말리고(10:1-9,14-15),
고아와 과부, 나그네와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수반되었습니다.
<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! (7:3,23)>

그들의 신앙은 성전과 제사에 갇혀있었습니다.
<하나님 사랑>과 <이웃 사랑>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.
<여호와 경외>는 종교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(10:10-16,23),
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안녕에 직결됩니다(7:23, 8:8-9, 9:23-24).

나는 참 <신앙인>입니까?

- ❶ 나는 하나님 앞에 <귀를 열고> 나아갑니까?
- ❷ 나의 신앙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속, 일상에서도 동일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7-10장